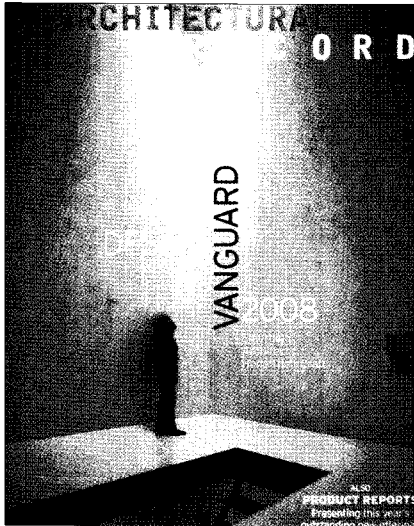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project 섹션에서는 중국의 Atelier Zhanglei, 스페인의 Cadaval & Solá-Morlaes, 뉴욕의 Urban A&O, 독일의 Kuehn Malvezzi, 콜롬비아의 Daniel Bonilla, 코네티컷의 MOS, 일본의 Makoto Tanijiri/Suppose Design Office, 칠레의 Smiljan Radic, 영국의 Gianni Botsford, 프랑스의 BRS Architectes와 같은 떠오르는 선구자적인 건축사들의 작품을 소개하여 눈길을 끈다. Books 섹션에서는 'Learning from nonarchitect designers'라는 주제 아래 건축가가 아닌 디자이너로부터 배울 수 있는 디자인 이론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독일의 Hotel Ellington, 캘리포니아의 Cavallo Point-The Lodge at Golden Gate, 호주의 Southern Ocean Lodge와 같은 호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 Books

Graphic Design: The New Basics; by Ellen Lupton and Jennifer Cole Phillip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8

과거 20년동안 디자인 교육자들은 고정되고 보편적인 디자인 원리를 갖춘 모더니스트적인 사고에 대해 도전해 왔다. 이러한 사고는 처음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다음은 서서히 침식되었으며 다음은 비판이론에 의해 그리고

결국은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침식되었다. 그러나 바우하우스와 같은 추상의 훈련의 부재 상황 하에서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있어 주어지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무수한 기회는 cut, paste, shuffle의 바다에서 2차원적 디자인 기조를 결국 해매게 만든다.

2005년, Maryland Institute of Art의 디자인 교수인 Ellen Lupton과 Jennifer Cole Phillips은 이 상황을 역점을 두고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현재라는 필터로 바우하우스를 소생시켰다. 보편적인 시각적 언어 대신 그들은 역사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디자이너들을 연결시켜주는 시각적인 원리의 기본적인 지식을 제안했다. 이 책은 이러한 틀 안에서 이 두 교수가 가르치면서 배웠던 것을 소개하고 있다. 각 장들도 '점, 선, 면', '비례', 그리고 '전경/배경' 과 같이 친근한 제목들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적인 이미지들이 풍부하게 실려있다.

이 책은 그래픽 디자인 교육의 기본원리를 위한 중요한 교재이며 마찬가지로 건축가들에게도 필독서가 될 것이다.

Seventy-nine Short Essays on Design; by Michael Bieru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7

믿을 수 없겠지만 이 책에는 아무 그림도 없다. 단지 DesignObserver.com의 Michael Bierut의 블로그로부터 나온 내용들로 이루어진 글로 되어 있다. 시각적인 것에 대한 유일한 양보는 79가지의 다른 서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Bierut의 이 책은 관찰과 상식의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으며 지혜와 기쁨을 준다.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항상 새로운 무엇" 이라고 유명한 이미지 작가들은 이야기한다. 디자인에 있어서의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저자는 건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우리가 사물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작품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현대의 디자인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는 문화적 맥락의 부족과 무지함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이 책에 있어 그의 목적은 건축과 건축사에게 날카로운 화살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더 많을 것이



최현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약력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디자인정보시스템 전공 석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

다” 라고 혼계하고 있다.

Design and Art: edited by Alex Coles. The MIT Press, 2007

현대 예술과 디자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짧은 글과 인터뷰로 이루어진 이 명문집에 글을 실은 41명의 작가 중에서 단지 두 명만이 건축사이고 한명이 건축역사학자이다. 그러나 주로 예술가, 산업디자이너, 그리고 예술비평가로부터의 다양한 글이 주는 통찰력은 색다른 학제간의 교류를 통해 어떤 영감을 찾고자 하는 건축가들로부터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각 분야 간의 경계 - 예를 들면 예술과 건축, 그리고 그래픽과 프로덕트 디자인 간의 모호한 경계선-를 허물어 버리고자 하는 이런 종류의 책에서 특이한 것은 어느 정도의 영동한 이론들이 있다는 것이다. 런던 출신의 예술 비평가인 Alex Coles는 패러다임, 유토피아와 집단공동체, 그리고 코디네이터라는 광범위한 카테고리 이 책의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축적 사고의 일반적인 습관에 대해 다소 놀라운 충격을 줄 것이라고 작가는 생각한 것이다. 건축사들은 명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산되고 클라이언트 지향적인 과정으로써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기 때문에 디자이너와 예술가로서의 건축사에 대한 개념은 변화무쌍한 개성을 가진 '스타' 건축사로 제한된다. 예술보다 상업성에 구속된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은 수많은 작가들이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예술적

이 디자인(수저로부터 도시까지)으로 각광을 받는 몇몇 건축사들이 전적으로 분석된다. 이 책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로서 그들의 위치를 재고하기를 바라는 건축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 ■ Projects

이번 프로젝트 섹션에서는 올해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건축분야에 가지고 온 영향에 대해 쓰고 있다. 올해의 건축계는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도 주목받는 신예 건축사들은 그들의 기술을 갈고 닦는데 집중하였다.

올해의 Design Vanguard에서는 현재의 질서를 뒤집거나 급진적으로 건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설계사무소는 아무 곳도 없었다. 대신 그들이 택한 것은 형태, 컨텍스트, 유형과 건설이었다.

대부분 젊은 건축사들이지만 이들은 전시를 위한 설치로부터 대규모 공공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작품을 개발하여 왔다. 현재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건축가들로 하여금 사고와 건축을 함께 있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만들 것이다.

### ATELIER ZHANGLEI

ATELIER ZHANGLEI는 긴장을 창조해 내기 위해 특별한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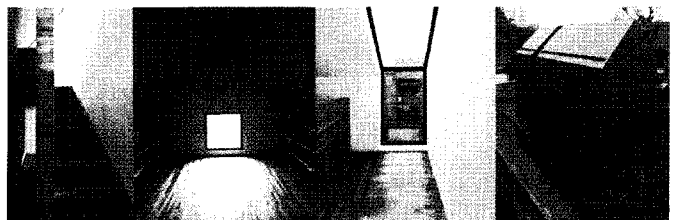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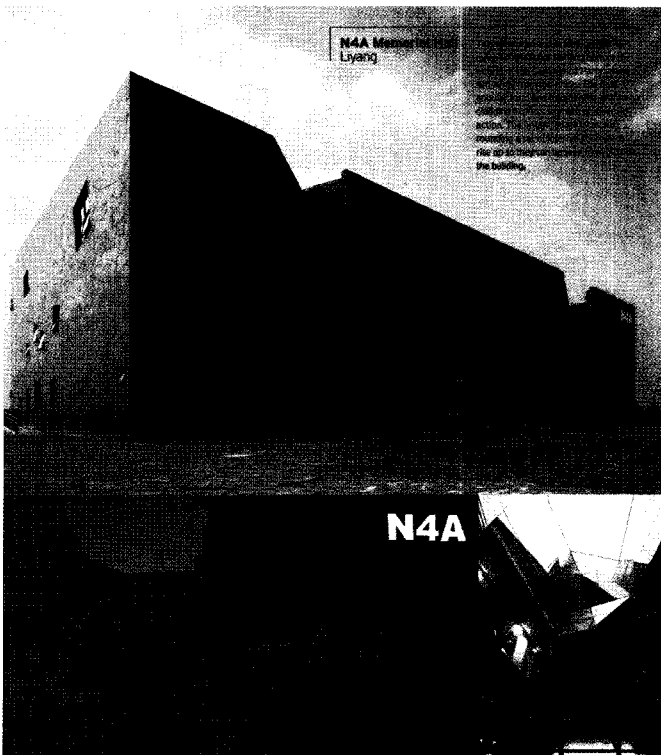
Zhang Lei는 Zurich의 ETH에서 건축공부를 마치고 중국의 경제 및 문화 르네상스에 동참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왔다. 스위스에서 Zhang은 합리적인 건축에로의 접근방식과 건축재료를 다루는 정확한 방법을 배웠다. '그쪽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것처럼 건물을 짓는다'고 Zhang은 이야기한다.

그는 1993년에 ETH를 졸업하고 HongKong과 Nanjing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2000년에 Nanjing에 Atelier Zhang를 열었다. 그는 2007년에 Slit House와 Brick House를 통해 두 가지 문화가 혼합된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건축재료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재료가 아니어도 된다. 재료들이 평범한 것이라면 나는 그것들을 색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축의 외피에서 어떤 논리를 창조하고 싶다." 고 Zhang은 이야기한다.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건축의 붐을 두고 고 Zhang은 "반창은 혼돈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최근 몇 년간 Nanjing이 급속히 성장했으나 이는 Beijing이나 Shanghai보다는 다소 조용한 편' 이라고 한다. Zhang 본인도 그러한 방식을 좋아한다고 한다. "최소화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좀더 많은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 그는 말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교요함을 창조해 내는 것, 그것이 그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과 해외에서 그의 저서와 그의 작품 전



ATELIER ZHANGL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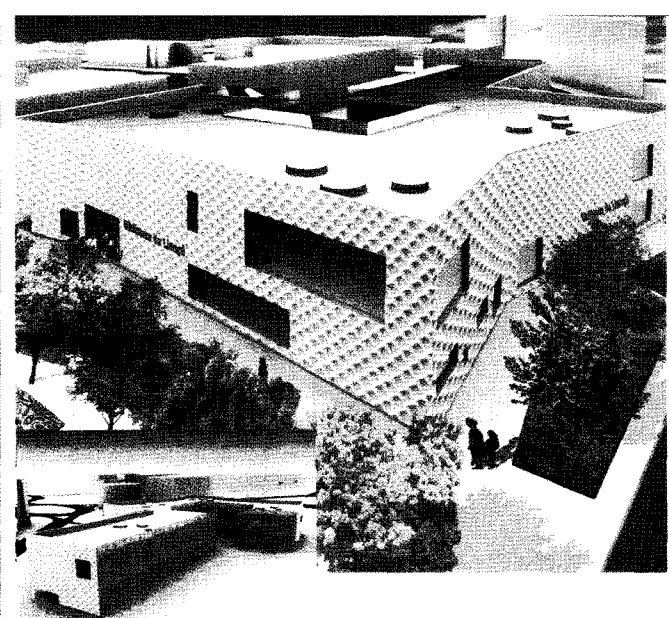
Slit House  
Nanjing

Zhang Lei copied the massing of adjacent garden houses from the 1920s, but abstracted their form and used concrete instead of gray brick. He changed materials, he says, because gray brick is no longer made in Nanjing, but concrete is. He used strips of wood just 2 inches wide for the concrete formwork, giving the material the texture almost of a fine textile. A zigzagging band of glass cleaves the 2,900-square-foot house in two and brings daylight inside.



**TDA House**  
Oaxaca, Mexico

Cadaval and Solá Morales designed the wall-to-wall profile of the TDA beach house to shield the main living spaces from the tropical sun. A thick but light-colored concrete slab, with the 19-foot cantilever of the mezzanine covering a terrace. The architects hope a multi-use structure for its low-cost, easy maintenance, and thermal mass, while making the need for air conditioning. Thick shutters of dark wood protect the house in the off-season, while windows are designed setting instead of glass.



**Llança Library**  
Llança, Spain

The snaking footprint of this competition project for a library in Llança, on the Costa Brava, north of Barcelona, crosses three outdoor pools in different scales and uses a modular urban fabric that lacks solid square spaces. A solid skin of white limestone protects one side of the building from the sun, strong winds from the mountains and noise from a nearby highway. The opposite side open to the town as a wall of vertical fins, strip

CADAVAL & SOLÁ-MORALES

시를 통해 Zhang이 성장함에 따라 Najing 이외의 곳에서도 건축작업을 하고 있다.

Nanjing 대학교 건축대학의 부학장이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것의 비중은 좀 줄이고 현업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서 관심이 많은데 이는 그 프로젝트가 도시적 맥락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Zurich에서 배운 합리주의와 보다 지역적인 것, 보다 신기한 것이 혼합된 것이 자신의 작품성향이라고 이야기한다.

**CADAVAL & SOLÁ-MORALES**

CADAVAL & SOLÁ-MORALES는 다양한 문화 사이를 쉽게 오간다.

2003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래 Eduardo Cadaval과 Clara Solá-Morales는 디테일, 컬러, 그리고 질감을 위한 안목을 연마해 오는 반면 단순함과 독특한 것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는 공간적인 이슈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개발해왔다. 그들의 작품에는 세 다른 나라의 경험과 문화가 섞여있다. 하나는 Mexico로 Cadaval이 태어나서 공부한 곳이다. 두 번째는 Spain, 특히 Barcelona로 건축 역사가이자 비평가인 Ignasi Solá-Morales의 딸인 Solá-Morales가 자라고 공부한 곳이다. 나머지 하나는 미국으로 이 부부는 Harvard에서 만났으며 New York에 처음 정착했다. 이 부부는 현재 Barcelona에 사무실이 있으며 또

하나의 사무실은 Mexico City에 있다. Oaxaca의 Puerto Escondido에 있는 Beach House는 그들의 두드러진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이 부부 건축사들은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New York에서 시작하였으나 1920년대에 지어진 Pedralves 궁의 인테리어를 리노베이션하기 위한 디자인 경기에서 우승한 후에 Barcelona로 이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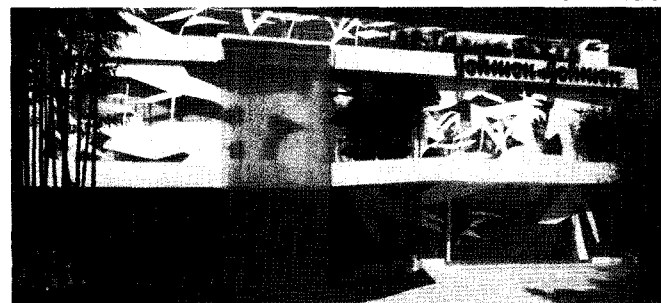
Solá-Morales는 두 부부가 Barcelona로 이전해 온 이유 중 하나가 설계경기와 중세 해안 도시인 Llança의 도서관과 같은 공공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작업은 New

URBAN A &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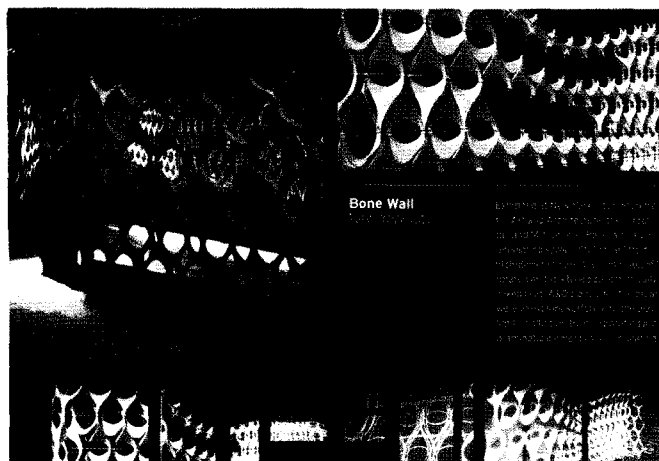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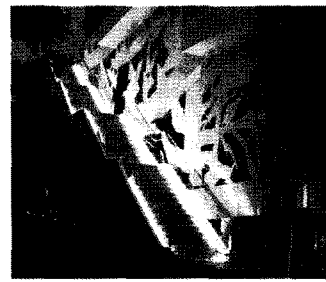
**NEW YORK CITY**

2008 competition sponsored by the local chapter of the AIA, A&O fabricated a delicate 19-foot-tall structure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The freestyle object is made up of uniquely scaled, twisted, and nested hexagons. The architects printed the tower in 15-brush sections and spliced the pieces together with complex but ultimately invisible joints.



**Johnson & Johnson Olympic Games Pavilion**  
Beij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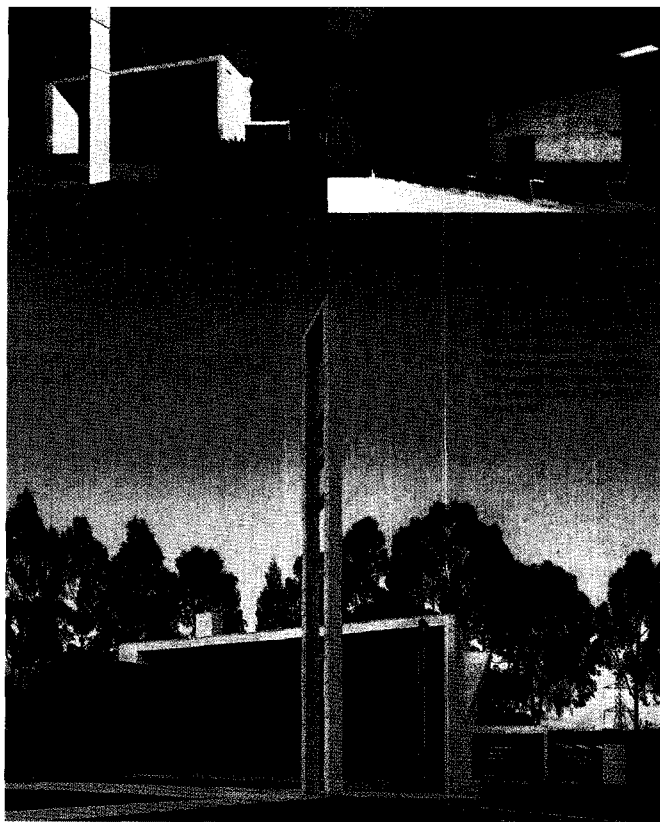
In a 25,000-square-foot exhibition pavilion for Johnson & Johnson at the 2008 Olympic Games is A&O's first free-standing building. Outside the tilted glass-enclosed structure, a water garden and bamboo grove create a lush microclimate. The architect also brought the bamboo inside, running the building with its grounds. Its roof of aluminum glass windows filters the light effects designed by A&O collaborator Th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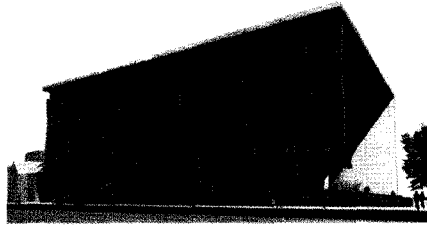
**Bone Wall**

Exhibiting the world's largest 3D printed structure, the Bone Wall is a 19-foot-tall, 19-foot-wide structure made of uniquely scaled, twisted, and nested hexagons. The architects printed the tower in 15-brush sections and spliced the pieces together with complex but ultimately invisible joints.





**Bogotá Chamber of Commerce Building**  
Bogotá



Slated for completion in 2009, this building comprises a wood-screened box shielded by a granite frame, and illustrates Bonilla's interest in how architecture can relate to the city. By introducing a sloped topography to the flat site, he created two "ground floors," where the street leads into the building. Breaking up the required square footage for the main level also enabled Bonilla to free up space for a large ramp that functions as a public terrace.



**National Library, Jose Vasconcelos**  
Mexico City

Bonilla collaborated with architects Isaac Bróid and Giancarlo Mazziotti on this competition entry (a finalist) for a new central public library in Mexico City. To break down the scale of what would be the country's largest library, the architects created a series of small libraries within the large building. A simple onyx-and-glass volume contains three pairs of boxes - each housing a particular collection - which are separated by courtyards.



DANIEL BONILLA

York에서처럼 작은 규모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Cadaval은 오늘날 아방가르드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 이 회사의 디자인에 대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URBAN A & O

URBAN A & O는 공간과 조각같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적인 놀라운 솜씨를 보여준다.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사무소처럼 New York City에 기반을 둔 URBAN A & O는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CATIA와 같은 툴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각같은 형태와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오브젝트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적인 제작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에 속한 노예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과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라고 이 16년된 회사의 설립자이자 사장인 Joe MacDonald는 이야기한다.

이러한 그들의 열망은 Renzo Piano의 최근 작품인 San Francisco의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의 한 요소인 Water Planet에 의해 생생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A&O는 전시 디자인 회사인 Thinc와 함께 물과 생명체 사이의 상호관계를 탐험할 수 있는 영원한 멀티미디어 장치를 창조해 냈다. 물결과 같은 벽은 수족관 물탱크를 감쌌으며 흐르는 듯한 형태의 "심"은 상호작용하는 디스플레이와 살아있는 동물을 연결시켜주었다.

MacDonald는 A&O가 물론 그것이 주거용 건물이 될지 오피스 타워가 될지는 모르지만 초고층 빌딩을 설계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프로그램보다는 수직성과 기하학적이 형태에 관심이 더 많다" 고 그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의 건물 형태에 대한 첫 번째 관심사는 순수하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환경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타워를 원할 것이다. "나의 목적은 수직적인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 DANIEL BONILLA

DANIEL BONILLA는 도시 디자인을 위한 눈으로 건축을 바라본다.

건축분야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건축교육을 받지 못한 9살짜리 꼬마 Bonilla는 그때 건축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현대 건축을 좋아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다" 고 자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은 모두 책이나 잡지에 있는 건물들이었다고 한다. "나는 여전히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또 여전히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고 이야기한다.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던 그는 그의 고향인 Colombia에 있는 Bogotá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고등학교 때 건도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관점으로 건물을 그리곤 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나의 작품에서 중요한 어떻게 건물 이 사회를 변화하고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

심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고 그는 말한다. Bogotá의 Los Andes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Dublin에 다녀왔다. 그는 Colombia로 돌아왔을 때 도시를 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영국에서 도시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런던 도시계획 컨설턴트 업무를 맡았었다. Bogotá로 돌아온 그는 사무소를 시작하였으나 작업이 느리고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사뭇 깨닫고 건축 디자인 사무실로 변경하였다. 1997년 그의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Colombia의 경기침체는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 사무실 문을 닫은 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나 기회는 다시 찾아와 독일 Hanover에서 있던 World Fair에서 Colombia의 국가전시관을 위한 설계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는 건축사로서 인정을 받았다. Bonilla의 주된 관심사가 이제는 건축으로 넘어가긴 했으나 그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경험은 그에게 아직도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수년간 그는 무엇이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 건물이 도시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도시를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어떻게 도시를 더욱 진화시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의 건축 설계에 있어서의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Bonilla의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벽돌을 주로 사용하는 Colombia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전통을 따르는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기 위해서 전통을 현

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이런 작업들이 젊은 건축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수적인 접근방법이 점차적으로 세계화되어 가는 세계로부터 문화를 고립시킬 수 있으며 세계적인 건축 분야에서 2등급 시민에 머물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큰 영향력을 줄 수 많은 기회 또한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여기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것 같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동감을 느껴야만 한다” 고.

## MAKOTO TANIJIRI

MAKOTO TANIJIRI는 일본의 일반적인 상호관계 밖에서 작업한다.

Toktyo에서 단독 전시회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면 대부분의 젊은 건축가들은 그들의 건물을 전시할 것이다. 그러나 Hiroshima에 Suppose Design Office를 세운 Makoto Tanijiri는 대부분의 건축사와 달랐다. 그는 단

독 작품을 보여주기 보다는 그의 최근 전시인 Prismic 갤러리에서 있었던 Tokyo Office를 전체 공간에 전시하였다. 책상, 의자 컴퓨터가 전시장과 전시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컨셉 스케치는 벽에 자유로이 테이프로 붙여놓았고 드로잉 북과 스테디 모델들이 살아있는 그림처럼 예술적으로 놓여 있었다.

Hiroshima의 성공한 젊은 건축사의 한 사람으로써 Tanijiri는 메디컬 클리닉, 작은 교회, 다양한 상업적인 인테리어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를 해왔다.

그는 학교 다닐 때 빈둥거리며 지냈다고 인정한다. 그는 잘 알려진 디자이너와 함께 견습 과정을 밟을 수 있는 명문학교를 들어가는 대신 2년짜리 기술학교에 들어갔으며 거기서 그는 설계시공 일괄방식(Design-build)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공의 기초와 현재 그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자질을 갈고 닦았다.

5년 후 26세가 되던 해, 2000년에 Tanijiri는 회사를 떠나 회사를 설립한다. 첫해는 친구의 소규모 인테리어 작업을 도와주며 보낸 반면 산

악자전거 경주에 몰입해서 지냈다. 2년째에는 진정한 건축사로서의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Hiroshima 지방에 레스토랑과 주거를 결합한 Float를 완성한 2003년까지도 대중은 그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닥에 높이차가 있는 대지(Split-level site)에 양다리를 걸친 것과 유사한 거대한 스틸 프레임 사용하고 나서부터이다.

“어려운 문제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고 Tanijiri는 이야기한다.

아마 다른 이들이 꺼리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는 Tanijiri의 자발적인 태도는 비정규적이지 않았던 그의 트레이닝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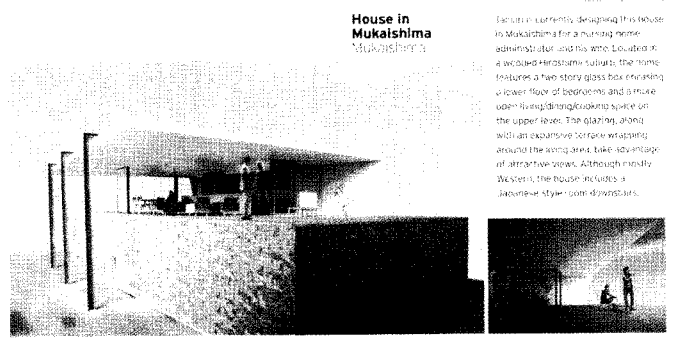
전혀적으로 일본의 대학이나 디자인 사무소에서 생겨나는 조언자나 스승과의 강한 유대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는 넓은 안목과 그만이 가진 톨을 가지고 건축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그 어떤 형식적, 구조적, 그리고 재료에 있어서 특별히 선호하는 것이 없다. “강력한 초기 아이디어가 강력한 건물을 만든다” 고 이 젊은 건축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

## MAKOTO TANIJI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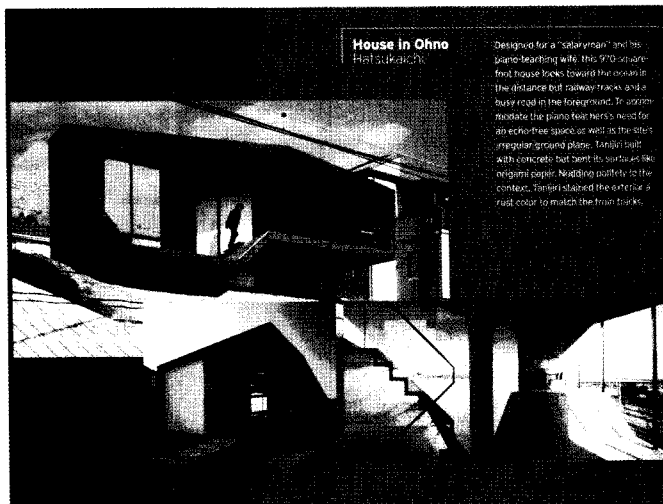
Café La Miell Matsuyama

Set on a suburban roadside, this café has an angled, gravel-roofed roof that soars to 21 feet in height but acts as a seamless extension of the ground plane at the rear. Spread over two levels, the 2,500-square-foot space can accommodate 100 customers at a time. Concrete walls shield the interior from the surrounding parking lot, but large glass panes on the street facade and semi-enclosed rock gardens at the rear let in light and even a littl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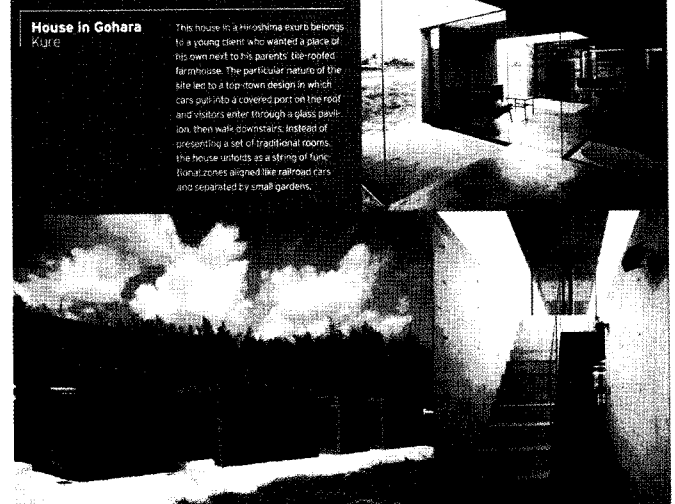
House in Mukaihima

Tanijiri is currently designing 110 beds in accommodations for a nursing home, administered by his firm. Located in a wooded Hiroshima suburb, the home features a two-story glass box enclosing a lower floor of bedrooms and a mezzanine level with dining and living space on the upper level. The glazing, along with an expansive terrace wrapping around the entire block, takes advantage of attractive views. Although minimalist in style, the house includes a Japanese-style open fireplace.



House in Ohno

Designed for a “salaryman” and his piano-learning wife, this 970-square-foot house backs toward the ocean in the distance but toward train tracks and a busy road in the foreground. It accommodates the piano teacher’s need for an ejection space as well as the site’s irregular ground plane. Tanijiri built with concrete but bent its surfaces like origami paper. Nestling quietly to the context, Tanijiri stained the exterior a rust color to match the train tracks.



House in Gohara

This house in a Hiroshima suburb belongs to a young client who wanted a place of his own next to his parents’ two-roofed farmhouse. The particular nature of the site led to a top-down design in which cars pull into a covered port on the roof and visitors enter through a glass pavilion, then walk downstairs. Instead of presenting a set of traditional rooms, the house unfolds as a string of functional zones aligned like railroad cars and separated by small gardens.